미륵도량 금산사 성보문화재 첫 서울 전시

'모악산 금산사-도솔천에서 빛을 밝히다' 展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9월 3일~11월 30일
금산사 5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등 118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호남지역 사찰을 대표하는 금산사의 역사와 문화재를 소개하는 전시가 열린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문)은 9월 3일(개막식 오후 3시)부터 11월 30일까지 2019 특별전 '모악산 금산사-도솔천에서 빛을 밝히다' 를 개최한다.

금산사의 성보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공개되는 이번 전시는 보물 9건, 유형문화재 8건, 등록문화재 1건, 민속문화재 1건을 포함하여 총 94건 118점의 성보문화재를 전시한다. 특히 대중들에게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금산사 5층석탑에서 발견된 불상들과 금산사 말사 문화재를 대표하는 실상사 약수암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심곡사 7층석탑 발견 불상, 위봉사 구천오백불도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미륵성지의 토대를 마련한 진표율사와 미륵도량의 구현을 보여주는 미륵전 벽화공개, 혜덕왕사 주석시절 법상종의 종찰로 찬란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또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의 집결지가 된 이래 왜군의 보복으로 사찰 전역이 소실된 후 사찰 재건을 위한 스님들의 노력과 재건된 금산사의 모습, 금산사 말사의 성보문화재, 근현대 금산사의 모습 등을 담아내어 금산사의 찬란한 성보와 금산사를 이끈 수행자들의 모습을 재조명한다.

아울러 불교중앙박물관은 이번 특별전과 연계하여 9월 19일 오후 3시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금당사괘불(1692년, 보물 제1266호)' 의 공개식을 열고 약 2주간 전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 '미륵의 도량 금산사' 에서는 '모악산 금산사 편액(조선 후기)', '미륵전 벽화(조선 후기)', '미륵전 법화림 보살상 복장유물(조선 후기)' 등이 전시된다. 금산사는 599년 자복사(資福寺)로 창건됐다고 전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나 유물은 없다. 진표율사가 금산사의 숭제법사에게 출가했다는 기록과 통일신라시대 초기에 활동한 의적(義寂 · 681~?) 스님이 금산사에 머물렀다는 단편적인 기록들을 통해 당시 금산사가 창건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금산사가 대사찰의 면모를 갖춘 것은 통일신라시대 진표율사가 주석하면서 부터다. 진표 스님은 미륵전을 짓고 미륵장륙상을 조성했으며 해마다 단(壇)을 열어 법시(法施)를 베풀었다.


1971년 금산사 5층 석탑 해체 수리과정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

△2부 '금산사를 일으키다' 에서는 '금산사 혜덕왕사탑비 탁본(고려, 보물 제24호)', '금산사 5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조선)', '뇌묵대사 처영 진영(조선 후기)' 등이 전시된다.

고려에 들어 혜덕왕사 소현(1038~1096)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금산사는 확장됐다. 현존하는 방등계단, 석련대, 노주 등 중요 석조물들이 모두 이때 조성됐으며, 경전 간행과 법석을 주관하는 광교원이 설립됐다. 특히 금산사 5층석탑은 미륵전 위 방등계단과 함께 자리잡고 있는 고려시대 석탑으로 해체 수리하는 과정에서 '모악산금산사오층석탑중창기' 와 더불어 다량의 사리장엄구가 발견됐다. 금산사는 임진왜란 때 뇌묵 처영을 중심으로 한 의승군 활동의 중심지였다. 뇌묵 처영은 청허 휴정, 사명 유정, 기허 영규 등과 함께 대표적 의승장으로 손꼽히는 인물로 한국전란사의 위인으로 칭송된다.

△3부 '천년고찰 금산사의 본말사 성보' 에서는 '금당사 괘불(1692년, 보물 제1266호)', '실상사 백장암 보살좌상(조선 초기, 전북 유형문화재 제166호)' 등이 전시된다. 금산사는 14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유서 깊은 명찰이다. 금산사 일원은 사적 제49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산사와 더불어 금산사의 말사도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들이다. 금산사는 임진왜란 때 왜군의 방화로 모든 건물과 산내의 40여 개 암자가 완전히 소실되는 등 수난을 겪었으나 이후 많은 문화재가 조성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금산사성보박물관은 1998년에 설립되어 보관이 어렵거나 도난 훼손 등의 위험이 있는 본 · 말사의 성보 문화재를 보존 · 관리하고 있다.

△4부 '근현대 금산사(사진, 영상전)' 에서는 '공주 신원사 소림원 여래입상(1935년, 등록문화재 제620호)' 를 비롯해 금산사의 근현대사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과 영상 등이 소개된다.

임진왜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호남을 대표하는 명찰로 자리 잡은 금산사는 1935년 3월 큰 화재로 미륵전 본존불이 전소되는 등 수난을 겪는다. 당시 공모전이라는 파격적인 방식으로 복원불사를 진행했다. 작가로 선정된 김복진 조각가는 새로운 재료인 석고를 이용하면서도 전통을 계승한 미륵대불을 완성했다.

금산사는 통일신라 경덕왕 때 진표 율사에 의해 중창되어 미륵성지, 유가종찰로 오늘에 이른다. 금산사는 1400여 년을 이어온 장구한 역사만큼이나 긴 시간 속에서 혜덕왕사를 비롯한 불교계 대표 고승을 배출했으며, 국보 제62호 미륵전과 거대한 미륵불상은 호남지역 민초들의 애환과 희망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뇌묵처영대사가 전공을 세웠던 도량이다.

펜화로 옮긴 우리 가람 풍경들

김영택 펜화 미황사 초대전
미황사 8월 30일~9월 30일
대장암 투병 미황사서 정진

한국 펜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불교건축물을 비롯한 한국 전통건축물과 세계 건축물의 아름다움까지 펜화를 통해 알리고 있는 김영택 화백이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남 해남 미황사 자하루에서 초대전 '김영택 펜화전' 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황룡사 9층대탑 복원화, 달마산 미황사 등 20여 점의 국내 건축물 작품과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 등 20여 점의 해외 건축물 작품이 전시된다.

카메라 렌즈와 인간의 시각이 다른 점에 착안하여 개발한 '김영택 화법' 으로 그린 '달마산 미황사' 는 사진에서 볼 수 없는, 사진과는 또 다른 현장감을 선사한다. 황룡사 9층대탑을 비롯하여 로마 콜로세움에 이르기까지 사라지거나 크게 훼손된 문화재들을 펜화로 복원할 수 있었던 것은 김 화백의 오랜 경험과 축적된 지식, 방대한 자료축적이 이룬 결과다.


김영택 作, 달마산 미황사.

김화백은 한국, 중국, 일본 및 서구 건축문화재를 펜화로 옮기면서 '전통한옥을 통한 한국인의 특성' 을 새로운 시각으로 정립 할 수 있었다. 그것은 김 화백의 펜화가 단순한 묘사가 아닌 건물에 담긴 장인의 심성까지 그려냈기 때문이다.

2003년 통도사 펜화 달력으로 불교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후 범어사, 송광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에 100만부가 넘는 펜화달력을 발간하여 불법홍포에 큰 힘을 보태온 김 화백이 땅끝마을 미황사에서 대표작품 40점을 전시한다.

김 화백은 현재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미황사에 머물며 작업하고 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다시 펜을 잡는다. 요즘은 화엄사 각황전을 그리고 있다.

"주지실보다 더 좋은 지도법사실을 내준 금강 스님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요즘 몸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 속에 있으니 병마는 분명 떨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 화백은 펜 하나로 병마와 마주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바라오페라단 음성공양 '성불 이루리'

불자성악가 4인 4색의 향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 9월 8일 오후 4시

불교계 유일한 오페라단인 바라오페라단은 9월 8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공연장에서 2019 불자성악가 4인 4색의 향연 '성불이루리' 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공연인 이번 공연은 불법 인연의 소중함과 성불을 향한 정진과 포교의 원력을 담아 대중에게 올리는 음성공양이다.

공연은 봉원사 · 육지장사 · 청룡사 · 포교사단서울지역 연합합창단과 소프라노 김양희, 메조 소프라노 연정연, 테너 이준형, 테너 허철영이 출연해 '불법인연 높습니다(지원 스님 작사, 정부기 작곡)', '석불의 빈손(황학현 작사, 박이제 작곡)', '산은 산 물은 물이로다(성철 스님 작사, 박이제 작곡)' '성불 이루리(법운 스님 작사, 강영화 작곡)' 등 14곡을 선보인다.

불자성악가로 구성된 바라오페라단은 진취적이고 섬세한 음악세계와 자신감 넘치는 탄탄한 연주 실력을 바탕으로 일반 대중은 물론 많은 음악애호가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온 불교계 유일한 오페라단이다. 오페라단은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각종 연주회에서 왕성한 활동, 친숙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찰의 산사음악회를 비롯한 각종 공연에서 독특한 음악적 컬러와 곡해석, 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